

광주 하남지구에 1500년전 삼국시대 대규모 마을 유적



한강문화재연구원 박진국(왼쪽 두번째)조사원이 9일 열린 광산구 하남3지구 삼국시대 마을유적지 설명회에서 중요한 유물로 평가받은 가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6세기 주거·매장·창고 변화상 한눈에

해발 29.8m 지하식 가마 등 발견... 전문가들 "5세기 마을 가장 번성"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에서 발견된 4~6세기 삼국시대 마을유적은 "고대 도시 유적이 집약돼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0~25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마을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발굴 조사 지역인 하남동 154번지 일대 4만487㎡에서만 모두 493기의 유구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접한 하남 2지구 마을유적과 함께 보면 드물게 발견되는 대단위 마을유적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단계별 변화상 한눈에=250년이라는 세월동안 마을이 형성된 이 유적지에서는 주거에서 매장, 창고 등 단계별로 변화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이 마을은 유적지 중심을 가로지르는 'Y'자 형태의 곡부들 사이에 두고 형성됐다. 특히 주거지에서는 지속적으로 주거지 형태의 건물이 세워지고, 고상식 건물지에서는 지속적으로 고상식 건물지가 발달하면서 생겨난 것도 특징이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장방형토기 등 수많은 생활형 토기가 발견됐다. 확인된 4기의 가마 중 2호로 이름 붙인 가마는 이번 유적지 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2호 가마는 해발 29.8m 지점을 파서 불을 때는 연소부를 만들고 동쪽 쪽사



유적지에서 출토된 다양한 형태의 생활 토기들.

면을 따라 굴을 파고 올라가 연기를 빼내는 배연부로 마무리한 지하식 가마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5세기 무렵에 이 유적지 마을이 가장 성장했던 것으로 분석하면서 가마를 만들어 운영한 시기는 6세기로 추정했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이 가마의 이전 보존 필요성을 놓고 많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수많은 주거지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터가 없다는 점이다.

이번 발굴조사에 학술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최성락 목포대 교수는 "4~6세기 마을 유적지에서는 화장실을 발견할 수 없는데 이 같은 현상이 하남 3

지구 유적지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며 "이동식 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정호 동신대 교수도 "요즘으로 말하면 도시유적"이라며 "광산구에서 그동안 발견된 다른 유적지들과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남만큼 고대 유적이 집약돼 있는 곳은 찾기 힘들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교수는 특히 "광산구에서 발견되는 유적지들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하남산단 부지에 대형 고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유적지 위에 들어서는 아파트=광주시는 하남 3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유적지

위에 아파트를 세운다는 의미다.

하남 3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지난 4일 전문가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기록 유산으로는 가치가 있지만 보존할만한 것은 아니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번 사업도 기존 토지 소유자들의 일부 토지만을 사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한지 방식'이기 때문에 보존할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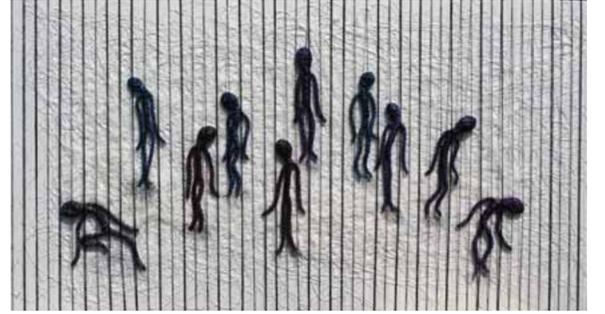
하남 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60억원, 전체 면적 61만1000㎡다. 매장문화재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정호 교수는 "현장에서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최성락 교수는 "중요한 유적인 것만 큼은 틀림없지만 현실적으로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번 발굴 조사도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이전에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진행한 최소한의 노력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보존보다는 개발이라는 논리에 힘이 실려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리 좋은 유적이라도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 가면 가슴 아픈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글·사진=김경민기자 kki@



'공간속의 이야기'

천·태·만·상

갤러리S, 30일까지 주미희 개인전

광주 신양파크호텔에 자리한 '갤러리S'는 오는 30일까지 주미희 개인전 '천태만상'(千態萬象)전을 연다.

주씨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선(線)을 이용해 표현하는 작가다. 철사와 색실을 이용해 인간의 형태를 만들고 다양한 움직임의 군상들을 함께 나열한다.

이 과정을 통해 죽음 앞에서 허무한 인생을 조합하고 그 안에서 교감하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주씨는 "선은 삶과 죽음, 죽음 이후의

끝없는 세계를 표현하는 매개체이며 색은 인간 주변의 상황, 집단 또는 개인의 감정, 삶과 죽음의 상징적 표현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씨는 조선대 미술대학 조소과와 같은 대학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거쳐 프랑스 파리 8대학 조형예술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4차례 개인전을 열고, 그룹전에 100여회 참여했다. 전국조각가협회, 광주전업작가회, 백화조각회, 남도조각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10-8618-7668. /김경민기자 kki@

전남여고 '한공주' 광주학생연극제 대상

8일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막을 내린 제 26회 광주학생연극제에서 전남여고등학교(교장 전용옥)가 '한공주'로 대상을 수상했다.

'한공주'는 영화 '한공주'를 연극 형식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전학생 공주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전남여고는 전국청소년연극제 본선에 광주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유·스퀘어문화관과 광주연극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경연에는 모두 7개 고

등학교가 참여했으며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의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과 장덕고의 '해화'가 각각 우수작품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그밖의 분야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연기 대상=박진영(전남여고) ▲지도교사상=손아름(운남고) ▲최우수연기상=김보경(전남여상) 김아연(전남여고) ▲우수연기상=장충호(장덕고) 신수아(동신여고) 이지현(전남여상) 고헌찬(전남고) 이지현(전남여고)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현대미술관장 제공모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초부터 진행해 온 국립현대미술관장의 공모 절차 진행 결과 적격 후보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제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공모 및 접수, 서류와 면접과 역량평가 등을 거쳐 최근까지 미술계 의견을 거친 뒤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곧 제공모를 진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기획운영단장을 중심으로 미술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미술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더롭침대



가구빌딩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